

잘려나간 현대사의 허리 잇기

조정래의 대하소설 「太白山脈」

강고한 빨치산운동을 전개해온 대장 염상진은 부하 몇명과 함께 자폭한다. 대한민국 군경은 그의 머리를 길거리로 효시함으로써 신화적 영웅으로 인식될 그의 존재를 말살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우악스러운 그의 아내 죽산덕과 극우강패로서 형과 극한적 투쟁을 획책해온 동생 염상구가 이를 저지하여 염상진의 머리만 넣은 무덤을 만든다. 그 무덤 앞에 충직한 부하 하대치가 부하 6명과 함께 나타나 참배하고 결의를 다진다. 그리고 광막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

1948년 10월의 여순사건 직후부터 시작하여 휴전 직후인 1953년 9월로 대단원을 마감하는 대하소설 「태백산맥」의 마지막 장면이다.

전4부작 10권, 원고지로 1만6천여장 분량의 이 소설을 읽으며 나는 때론 콧잔등이 시큰해 지기도 했고, 고통받으며 처절히 살아가는 민중의 모습에 때론 망연자실하기도 했다. 자기 몫을 해내는 인물이 줄잡아 2백여명이나 등장하는데 그들이 얽히고 설켜 만들어내는 삶의 형상들이 참으로 파란만장하다.

사건의 주동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좌익세력의 계층형성이 역사적 관점에서 묘사되고 있으며, 중도적 입장의 민간인들이 중간적 토착세력으로 등장하고, 반란사건을 평정하기 위한 토벌군이 하나의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대립적 위치에 서고 있다.

「태백산맥」이 진한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소설적 '재미'에 있다. 책을 손에 들고나면 시간이 흐르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흥미진진하다. 전남 벌교 주변과 지리산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우여곡절과 사건사고, 애증과 희노애락이 몸을 옥죄어 온다. 좌·우

를 가릴 것 없이 자신의 세계관과 인생관에 투철하고자 하는 인간들의 강한 '인간애'도 가히 절묘하게 표현되어 있다.

소설을 읽어내려 가는 재미가 작가의 역사 의식, 작품의 역사성을 따지기 전에 들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이라면, 이 작품이 형상화하고 있는 금기시되어온 역사의 '빈틈'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맛보는 것은 또다른 감흥이 아닐 수 없다.

원하지도 않았고 예기치도 않았던 외세에 의한 반도의 '허리잘림'으로 인해 따지고 보면 이 땅의 순박하고 어진 민중들이 얼마나 고통 받았던가. 낮과 밤이 바뀌에 따라 깃발을 바꿔 달고 노래를 달리 불러야 했던 그 처연한 상황, 그 와중에서 죄없는 이들이 하나둘씩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암울한 시절을 이 작품은 이데올로기 자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는 가운데서 찾고 있다.

이 작품이 단순히 해방 직후의 격렬한 좌·우갈등만을 그렸다면 이토록 감동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분단상황에 대한 인식과 분단 극복의 역사적 전망을 민족사 내부의 구조에서 끊임없이 찾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 그 의도에 따라 창출된 인물의 '전형'들이 생생하게 자기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기에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모든 '사실'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아 있게 된다.

성종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 국회의원보좌관

전통적 여인상의 '발굴' 작업

김용숙 「한국 女俗史」

풍속사학적인 종합적 연구의 계통을 세워보려는 의도로 씌어진 金用淑女士의 「한국 女俗史」가 민음사에서 간행되었다. 민족과 전통윤리의 담지자로서 여성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이 책은, 특히 조선조 사대부 여성의 禮俗에 초점을 맞춰 전통윤리의 모체를 '발굴'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식·주를 비롯한 우리 전통사회의 생활문화사 전체를 '있었던 그대로' 재현해 보이고 있다. 제1장 상고의 여속, 제2장 신라의 여속, 제3장 고려의 여속, 제4장 조선조의 여속, 제5장 특수계급의 여속, 제6장 일반여속, 제7장 통과 의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제5장 특수계급의 여속에선 궁녀, 기녀, 유모와 침모, 기타 천녀의 여속을 다루고 있어 눈길을 끈다. 저자의 전공분야가 궁중문학·풍속이었던 만큼 궁녀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당시 지배층 풍속의 단면을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고, 궁녀를 '왕권의 그늘에 편 사치 노예적 꽃잎들'로 보는 저자의 시각은 당시 제도의 희생자였던 궁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해주었다.

제6장 일반여속에선 여성의 이름을 다루고 있어 성명학이나 고유의 이름에 관심이 고조되는 현재에 참고와 흥미가 될 수 있었다. 기타 풍속으로 봉선화 물들이기나 염색, 향침 등은 전통풍속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제7장 통과의례는 여성에게 특별한 장인 듯하다. 婚俗과 産俗을 다루어, 가문을 중시하는 풍조에 대해 기술하며 전통혼례와 요즘 혼례를 비교해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아들선호 사상의 뿌리 깊은 풍속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의 결론에서 한국여성의 전형성을 조선여인의 현신적 모성관과 희생적 인간관으로 밝히고 있어 읽는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특히, 각종 정·야사, 문학작품, 면담결과 등 기초자료의 충실한 인용은 이와 같은 결론의 논리적인 설득과 더불어 자료점검을 통한 사실확인만이 학문으로서의 가치가 있음을 새삼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 책을 처음 대했을 때 가졌던 용어에 대한 궁금증(풍속이 아닌 여속, 민속이 아닌 풍속에 대한 의문)은 읽어나가며 풀리게 되었고, 견문이 좁아서 지리하게 넘겨버렸던 신라와 고려의 복식부분은 그 분야의 전문서적을 통해 갈증을 해소할 셈이다.

통사적 체계를 갖춘 우리 풍속사를 일독했다는 즐거움과 함께, 婦德으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여인상을 가슴에 새기는 기쁨을 책을 덮으며 느껴본다.

강호경

경기도 남양주군 화도면 마석우리 심석중학교 교사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엘리트편집인 전문양성 교육기관
한국의 편집디자인센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73-3 (인성빌딩 2F)

'90 춘계 언론 취업반 모집요강
 편집자, 기자, 레이아웃터,
 교정자, 카피라이터

※ 수강예약미감 : 3월 10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 3월 10일
 수강대상 : 고졸(예정자) 이상, 전문대, 대졸

(代) 812-1715~6
 취업인력 정보실 FAX. 814-3387

이삭을 줍는 것을 배웠습니다.
 구슬같은 그 이삭을 보배로
 꿰어야 하는 인내도 배웠습니다.
 가끔은 낮과 밤 구별없는
 일과의 싸움도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칼날같은 업무를 하는,
 그러나 자상하신 편집장 님도 만날 것입니다.
 진정 활자밥을 먹겠다는,
 그리하여 오직 한 길을 가고픈 저희들의 마음입니다.
 저희들을 채용해 주신 출판·편집계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자아' 찾아나서는 求道小説

백금남의 「십우도」

백금남은 그의 다양한 문학상 수상경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에게 낯선 이름이다. 그것은 그가 아직 작가적 이력이 짧은 신인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그런 그가 얼마전 장편 「십우도」(고려원, 1989)를 내놓아 주목받고 있다. '깨달음으로 다가가는 일종의 의식소설'(최종률)이라거나 '한 개인의 정신적 발전과정을 불교적 관점으로 추적한 역작'(이청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는 「십우도」는 제목이 암시하는 바와 같이 불교적 수행과정의 일가를 빌어온 일종의 구도소설이다.

5대에 걸친 백정일가의 한으로 점철된 가계사를 불교적 수행과정과 접목시킨 「십우도」는 일단 소재면에서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도살을 업으로 삼는 백정들의 삶과 살생을 터부시하는 불교의 세계는 일견 대립적 관계에 놓여 화해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가는 과감히 백정들의 내면세계로 뛰어들어 이러한 통념을 깨뜨리고 그것이 결코 대립,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전개시키고 있다.

진정한 使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선 우선 자신의 주관을 소멸시켜야 하는데 아직 그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뜻나기 백정 산우는 소를 잡다 놓쳐버리고, 백정이 소를 잡다 놓쳐버리면 그 마을이 망한다는 미신을 신봉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의해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그는 잃어버린 소를 찾아 산으로 들어간다. 그 소를 찾아 산을 해매는 과정이 이 소설의 드러난 구조인 셈이다.

색다른 소재와 깊이 있는 주제에 천착한 반면 십우도는 그 나름대로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먼저 십우도는 5대에 걸친 긴 시간적 배경에 비해 공간적 배경이 지나치게 제한되어 있음으로 해서 작가가 이야기하는 '생활' 속에서의 구도, 즉 生活禪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관념의 세계에 몰입하게 된다. 때문에 생생한 현장감이 사라지고 '당대의 사회적 정황과 공동체의 삶에서 유리'되었다는 비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인물들의 성격이 지나치게 평면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역시 생생한 현장을 배제한 데서 어쩔 수 없이 기인하게 되는 것으로, 보다 역동적인 삶의 현장에서 갈등하는 인간형을 설정했을 때 입체적인 성격의 살아 움직이는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건을 덧붙이자면 십우도 속의 주공간적 배경인 '산'을 사람들이 모여사는 마을 속으로 옮겨 놓았다더라면 보다 좋은 소설이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점에서도 불구하고 '생존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오직 소만이 아니라 우리들 인간마저도 부당하고 억울하게 인간적인 자기 모양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상기할 때 그가 전개하는 구도의 고행이 나름대로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음에 틀림없다. 더구나 본격 종교소설이 별반 없는 우리 문단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그의 이런 작업은 일단 소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반철환

서울시 서초구 서초1동 1633-5 · 기자

월남전, 그 지워지지 않는 傷痕

안정효의 「하얀 전쟁」

롤링스톤즈의 '페인트 잇 블랙'(Paint it Black) 시그널로 시작되는 월남전 드라마 '머나먼 정글'을 MBC TV에서는 일주일에 한번씩 방영한다. 예전에 방영했던 드라마를 다시 또 방영하는 것은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증거다. 월남전은 왠지 남의 얘기 같지 않기 때문이다.

「하얀전쟁」은 바로 월남전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다. 재미있다. 무엇보다도, '양키'들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가 우리들이 주인공으로 나온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번역가인 안정효씨가 소설은 쓴다는 소문(?)은 전부터 들어왔었지만, 그의 작품을 읽는 것은 처음이다. 문장이 짧아 좋다. 뒤로 갈수록 사변적인 페이지가 이어지긴 했지만 마지막 사직공원에서 해프닝(?)까지 단숨에 읽어나갔다. 내용은 간단하다. 남들에게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정도로 남아있을 월남전. 그러나 애꿎게도 그 후유증에 시달리는 나, 한기주 병장 - 지금은 한 출판사의 부장 - 과 변진수 일병의 관계가 고리로 엮이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 마지막까지의 생존, 귀국, 업습해오는 전쟁 후유증, 그것은 일종의 사회적 아노미현상이다. 책을 읽지 못한 독자들은 F.코플라 감독의 「지옥의 묵시록」에서 전쟁의 상흔에 몸부림치는 딘·마틴을 생각하라. 이윽고 마지막 씬, 사직공원.

전쟁터에서 '조다' 같았던 변진수 일병이 자신을 죽여달라며 나에게 총을 건넨다. 폴란드 제 소령 리볼버, 총성! - 참전 용사들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나쁜 권태가 이어질 무렵, 어느날 갑자기 들이닥친 전투, 사라져가는 전우, 죽음이 너무 가깝게 있다는 절박함, 섹스조차 무의미해지는 본능의 상실, 왜 싸워야 하는가 라는 당위보다 생존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이 소설의 주조음을 이루고 있다.

한기주 병장의 일기엔 이런 귀절이 등장한다.

"전쟁은 주인공들이 달라질 뿐 내용은 항상 똑같은 연극이다. 연출자는 뒤로 물러나서 눈에 보이지 않고 무대 위에서는 의식조차 없는 꼭두각시들이 무언극을 벌인다. 연출자의 의도는 알지도 못하고 자기가 맡은 조그만 역의 짝막한 대사를 외을 따름이다."

작가는 「하얀전쟁」을 통해 "월남전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의 목적이나 입체적인 조감을 해보겠다는 오만한 욕심은 없다"고 후기에서 밝혔지만, 이쯤 오면 이 책이 의도하고자 하는 것이 대체로 어떤 것인가는 짐작이 간다.

"아무 죄 없는 개인들에게 집단의 논리로 무장한 '허튼 십자가'를 지게 하지 말라"는 주장이 바로 작가의 의도였다고 추측하는 것은 나만의 판단일까?

김호성

강원도 원주시 학성1동 1023-70 원주MBC ·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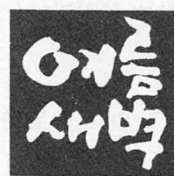


(구) 동보기획

- 표지디자인 · 본문편집 · 교정 · 제작 · 전산 · 수동사식
- 편집대행 · 영화, 비디오 홍보디자인 및 PR기획
- 기업 · 관공서 · 학교 등의 홍보기획 및 디자인
- 상품, 상호 제목 등의 디자인 및 카피

서울·중구 충무로4가132-5Q빌딩3층
PHONE: 267-8058 / 278-5883 279-1323
FAX: 278-5883

이 름다운 책, 읽기 편한 책을 원하십니까.
「여름새벽」으로 연락하십시오.
「여름새벽」은 일급쟁이들로 이루어진
창조적 두뇌집단입니다.



◀ 표지디자인 · 본문디자인 · 출판광고디자인 ▶

※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121-130 서울시 마포구 구수동 21-1 ☎ 718-6260

단색 스캐너

寫眞製版

— 전문메이커 —

- ◎ 즉석, 포시, 네가, 2度 분해
- ◎ 선명하고 깨끗한 사진 작업

進光文化社

TEL. 265-4726, 266-2091
주소: 중구 충무로 5가 2-23